군산시, 청년지원사업 호응

청년뜰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비대면 전환 눈길
개별 교육방 맨투맨 지원·원스톱 창업멘토링 등

군산시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청년지원사업을 활발히 펼치며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청년지원 플랫폼인 청년뜰에서 그간 오프라인으로 이뤄졌던 프로그램을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더욱 다양한 채널로 청년들의 취창업을 돕고 있다.

현재 청년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스타그램', 공기업취업을 준비하는 '잡 튜터링 클라스', 전문심리상담이 이뤄지는 '청년밀담' 등 11개의 청년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이다.

특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참여자의 수준을 고려해 개별 온라인 교육방을 개설하고, 맨투맨 지원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창업가의 지식재산권 출원을 도와주는 '군산시 창업가 지식재산권 교육·출업 지원사업'과 1:1 맞춤형 창업상담이 이뤄지는 '원스톱 창업멘토링' 등 창업지원프로그램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 동안 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재나 재료는 현장방문해 참여자가 직접 받아야 했으나 비대면 프로그램 취지에 맞춰 우편이나 이메일을 활용해 전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비대면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책을 계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비대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비대면의 장점을 살려 더 많은 청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먼 거리의 시민도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어 오히려 청년센터의 문턱이 낮아진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전문심리상담 프로그램인 '청년밀담'은 개인상담, 집단상담 및 구직어려움을 해소하는 멘토링으로 나눠 상시모집 중으로,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는 청년지원플랫폼인 청년뜰에서 오프라인으로 이뤄졌던 프로그램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더욱 다양한 채널로 청년들의 취창업을 돕고 있다.

익신시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높은 뜻을 기리고자 추진 중인 보훈회관 건립사업이 공정률 85%를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사진은 보훈회관 조감도.

익산시 보훈회관 건립사업 공정률 85%

내년 1월 보훈단체 입주 예정

익신시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높은 뜻을 기리고자 추진 중인 보훈회관 건립사업이 공정률 85%를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시에 따르면 익산시 보훈회관 건립사업은 기존 건물의 노후화로 제기된 안전상의 문제와 더불어 공간이 비좁아 9개 단체 전부를 수용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 2월 착공했다.

이 사업에는 총 36억3,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연면적 945㎡, 지상 3층 규모로서 현재 외관작업 완료 후 내부 작업이 진행 중이다. 건물 내부에는 다목적실과 보훈단체 사무실, 옥상 휴게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새로 지어질 보훈회관 건물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역주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상징물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내달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거쳐 내년 1월, 관내 9개 보훈단체 입주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설계단계부터 보훈단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고 있다"며 "고령이신 국가 유공자분들이 보훈회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과 편의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본궤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군산시에서 추진 중인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8일 시에 따르면 행안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투자사업이 200억원 이상일 경우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심사하는 절차로 군산의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조건부로 승인됐다.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위기대응 지역활력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돼 군산항 일원에 약 6만 8,000평 부지에 사업비 1,050억원을 들여 추진된다.

또한 중고차 수출·매매에 필요한 행정, 금융, 성능검사, 정비 등의시설을 집적화해 유통비용 절감과 성능과 가격의 신뢰를 형성, 선진국형 중고차 시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3년 4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된다.

시는 그간 기획재정부의 적격성심사, 행정안전부의 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에 많은 기일이 소요돼 행정절차 기간 단축을 최대의 과제로 노력해 왔다.

그 결과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수시로 추진해 이번에 통과했으며 승인 조건으로 제시한 민간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도 신속히 추진해 당초 계획된 일정에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 어촌뉴딜300 공모 선정 총력

군산시가 오는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의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산시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어촌뉴딜300사업 공모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마무리하고 신청서를 해수부에 접수할 예정이다고 8일 밝혔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진중인 어촌뉴딜300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 생활밀착형 인프라 현대화 등을 통한 어촌주민들의 삶의질 제고 및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 어항 및 항·포구 인접한 배후 어촌마을을 포함 통합개발로 어촌지역에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9년 2개소 2020년 3개소 사업지가 선정돼 총 5개 지역에 54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어항 및 어촌환경 개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오는 2021년 어촌뉴딜300사업의 신청 대상지인 선유3구항, 야미도항, 선유2구항, 관리도항, 두리도항, 서래포구 6개 지역에 대해 지역주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세부사업을 수립했다.

주요 사업내용은 어항의 기능 향상을 위한 방파제 연장, 물양장 조성, 어구어망창고 조성과 건강증진센터, 행복나눔센터, 청년귀어센터 등의 특화사업으로 구성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오는 10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오는 12월에 50개소 내외로 대상지를 최종 선정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촌뉴딜300사업은 어항의 기반시설과 더불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SOC사업, 소득사업이 포함되는 만큼 사업이 선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어촌뉴딜300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상의 "코로나19 피해업종 보증한도 추가를"

도내 상의 공동 관계부처 건의

익산상공회의소(회장 양희준)에서는 전북도내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해 보증한도 추가를 바라는 건의를 국무총리실과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코로나 19 등 감염병이 전 세계의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수출부진, 경기침체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긴급한 상황으로, 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자금조달 애로를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에서도 코로나19 특례보증등을 통해 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기존 보증한도와 통합해 지원하고 있는 상태로 기존 보증 한도가 소진된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코로나 19 특례보증의 경우 기존 보증한도와 별도로 보증여력을 증액해 업체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소상공인 무담보 특례보증처럼 한시적인 보증완화 조치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해 주기를 건의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는 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3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종 의결된 안건은 '익산시 마을세무사에 관한 조례안',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병직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보도의 신설·개축·수선·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해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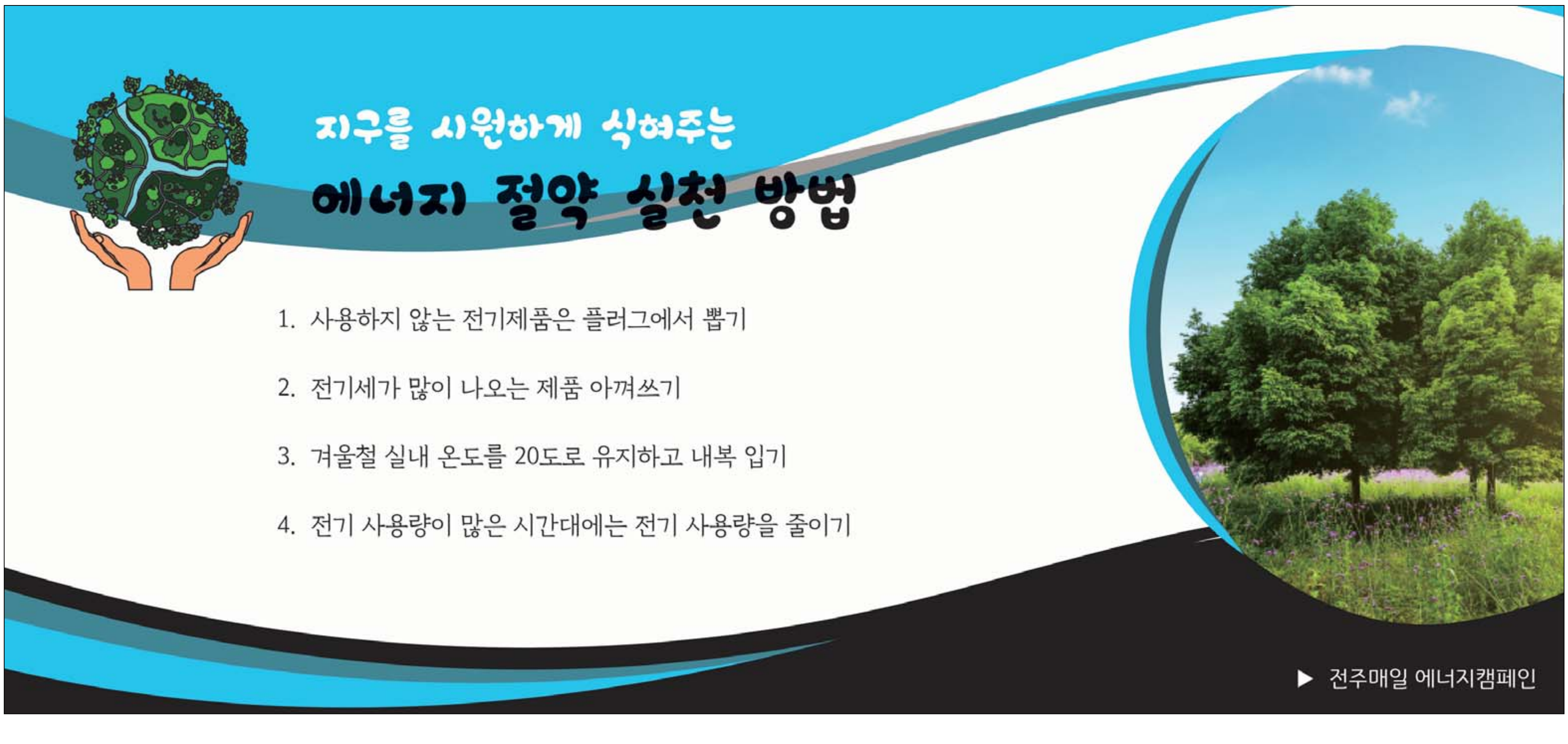
한동연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지원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차 본회의에서는 김진규 의원이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촉구' 등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 급여채권 압류

최근 지방세 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익산시가 급여채권 압류를 실시한다. 이번 급여 압류 대상자는 직장 급여가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초과하는 180여명으로 체납금액은 1,367건 5억 8,900만원이다.

시에 따르면 대상자가 이달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월부터 체납자의 급여 전액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185만원 초과분을 체납세액으로 충당한다. 이와 관련해 익산시는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실정을 감안할 때 이번 행정조치가 납세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압류 조치에 앞서 미리 예고서 발송 및 개별 상담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익산=장양원기자